

16/10/09(주) 주일예배 / 제목 : 일곱인봉(1~3인봉) (계 6:1~6) p. 405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 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봉**~**3인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됨으로 매우 감격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언에 대한 연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용기를 주어 가까이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6장부터 8장 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이 차례대로 땅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인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주제같이 느껴지지만, 그 의미를 하나 하나 짚어가며 연구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신앙이 크게 경성함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먼저 일곱 인에는 네 명의 말탄 자가 나오는데, 이 말탄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16: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거나 점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시작부터 마지막 까지를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아 이 인봉을 하나씩 떼심으로 시작됩니다.

본론 /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1~3인봉)

1. 첫째 인: 흰 말 등장 - 적그리스도의 출현 (1~2절)

1절을 보십시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라는 표현은 요한이 무엇인가 새롭고도 중요한 장면을 볼 때마다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을 매번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후에 인을 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팎으로 썼습니다. 밖에는 제목이 간단하게 쓰였고,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적혔습니다. 둘째, 일곱 인으로 봉하였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를 온전히 펴려면 일곱 인을 차례대로 모두 떼야 했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곱 인 중의 첫째 인을 떼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봉한 일곱 인을 차례대로 모두 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또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곱 인을 모두 떼시고,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모두 불고, 또한 마지막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모두 쏟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은 끝이 납니다. 그와 함께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대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가 본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에게 우렛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때에 우렛소리 같이 말하는 이는 네 생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인과 둘째 생물이 나오고, 5절에는 셋째 인과 셋째 생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넷째 인과 넷째 생물이 나옵니다. 보좌에 둘러 있는 생물의 수가 모두 넷이니까, 거기까지는 동일한 방식이 이어집니다.

계4:7 말씀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이 우렛소리처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렛소리의 강조점은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렛소리는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에 요한은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보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말들이 사육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흰 말과 그 탄 자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때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나오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또한 첫째 생물이 부르는 대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흰 말을 타고 오는 자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흰 말 탄 자”가 나오는 것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흰 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맥을 완전히 벗어난 사사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흰 말을 탄 자의 특징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 그는 활을 가졌고, 둘째, 그는 면류관을 받았으며, 셋째, 그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들 세 가지의 특징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무기의 일종으로서 화살을 쏘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은 가졌지만, 화살을 가졌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활이 상징하는 바가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진 것은 적그리스도가 화평의 언약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뜻합니다.

둘째,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원래 면류관은 이긴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 말을 탄 자는 이기기도 전에 미리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흰 말을 탄 자에게 면류관을 주사, 심판 받을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셋째, 흰 말을 탄 자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약속하는 거짓된 화평으로 말미암아 미혹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처럼 흰 말을 탄 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못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과 같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흰 말을 탄 자도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기에 겉으로는 평화의 언약을 내세우면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1. 첫째 인: 흰 말 등장 - 적그리스도의 출현 (1~2절)

2. 둘째 인: 붉은 말 등장 - 전쟁시대 (3~4절)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둘째 생물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붉은 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때 하나님의 심판은 큰 칼로 서로 죽이는 것, 곧 난리 또는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붉은 색은 전쟁 혹은 살육을 암시합니다(12:3; 왕하3:22,23; 속1:8; 6:2). 그런데 그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자' 서로 죽이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살육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는 말은 '큰 무기'를 받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살육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인지는 몰라도 살육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마24:6-7; 계6:3-4), 기근(마24:7; 6:5-6), 죽음(마24:7-9; 계6:7-8), 순교(마24:9-10;16-22; 계6:9-11),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짐(마24:29; 계6:12-14), 하나님의 심판(마24:32-25:26; 계6:15-17)입니다.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한 이레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한 이레는 칠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이레의 전반부에는 잠깐 동안의 화평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9:27 상)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 결과 잠깐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레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 대신 적그리스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살후2: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몹시 박해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미혹하는 자들의 화평 곧 거짓 평화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난리 곧 전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각각의 인을 떼실 때에도, 이와 똑같은 순서로 심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24:6~7)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1. 첫째 인: 흰 말 등장 - 적그리스도의 출현 (1~2절) 2. 둘째 인: 붉은 말 등장 - 전쟁시대 (3~4절)

3. 셋째 인: 검은 말 등장 - 기근시대 (5~6절)

5절을 보십시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에서 요한은 검은 말을 보게 되었는데,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셋째 인의 재앙은 기근을 상징합니다(렘4:27,28). 그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저울의 의미는 전쟁 후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 배급하는 절박한 기근의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헤의 전쟁이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겔4:9).

이때에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내용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어른이 일하여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다섯 되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되 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24되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석 되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기근, 심각한 가난과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것이고 보리는 가축 사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밀을 사면 혼자 밖에 먹을 수 없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보리 가축 사료를 사서 먹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셋째 인봉을 떼는 시기가 되면 이처럼 곡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곡물 등의 값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며, 설령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12되에서 16되 정도의 밀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1/16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기근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비옥한 경작지가 사라지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경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곡물 시장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큰 변동이 있었는데, 동유럽과 구소련의 폭염, 유럽의 수확기 폭우, 호주의 가뭄 등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가격은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이와 함께 옥수수, 콩 등 여러 곡물들도 급속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여러 신문들에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는 "국제 곡물 값 폭등", 같은 날 조선일보에는 "밀가루가 금가루 되나, 곡물 값 폭등에 아우성" 연합뉴스에는 "세계 곡물 값 천정부지, 경제 타격 우려"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 배가 오른 것도 아니고, 열 배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 겨우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이

에 대해 "폭등, 천정부지"라는 표현을 쓰고, "밀가루가 금가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0월 1일자 매일경제에는 "세계 식탁 위협하는 곡물 값 폭등" 동아일보에는 "국제 곡물, 기름 값 기지개 켜는 한국 경제에 찬물" 등, 이렇게 곳곳에서 위기를 우려하고 있지요. 밀 가격이 상승하니, 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들의 값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래서 기근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람유'와 '포도주'를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보아(신7:13; 11:14; 호2:8,22) 본문은 기근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근의 피해가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긴 하나 본격적인 재앙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평화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으면 멸망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핵심 : 예언을 주신 목적은 믿고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가집시다.

요약정리 / 일곱 인에 나타난 비밀들 (1~3인봉의 비밀들)

1. 첫째 인: 흰 말 등장 (적그리스도의 출현) - (1~2절)
2. 둘째 인: 붉은 말 등장 (전쟁 시대) - (3~4절)
3. 셋째 인: 검은 말 등장 (기근 시대) - (5~6절)